

ἩΝΘΩΝΡΟ ΙΜΡΟΝΡΕ 박사Æ 창세기Æ ČČ과Æ 이집트의 요셉Æ 창세기 ČEÆÇÇ장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22회기, 애굽의 요셉, 창세기 39-41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22과, 애굽에서의 요셉, 39장, 40장, 41장을 봅니다. 이 내용은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요셉의 삶과 그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37장으로 되돌아가는 반사입니다. 37장에서 여러분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납치하여 구덩이에 넣기로 결정하고 미디안이라고도 알려진 이스마엘 사람들의 여행하는 대상을 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 그들에게 팔자 그들은 그를 애굽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관료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는 경비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 3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유다와 요셉 사이의 대조와 유사점을 보는 창세기의 이야기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고 강력한 지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쪽, 즉 남부 유다 주에서 유다는 그들의 조상에 관한 이 모든 기록을 읽음으로써 히브리 민족의 가장 분명한 관심 대상이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 그 다음에는 왕족의 조상이 되는 유다인데, 그 중 가장 뛰어난 자는 유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유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세 아들을 낳고, 그 과정에서 두 아들이 죽는다. 첫째 아들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째 아들이 죽은 후 둘째 아들이 그녀와 결혼하고 그도 죽습니다.

세 사람 중 막내인 셋째 아들 유다는 그를 다말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말을 집으로 보냅니다. 다말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창녀 행세를 했습니다. 유다는 그 며느리인줄 모르고 그와 동침하였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춘에 대한 처벌은 죽음과 불태워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말은 유다에게 속한 개인 물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은 그녀가 임신한 아버지가 정말로 유다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위보다 자신의 행위가 더 의롭다는 사실을 부끄럽게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창녀로 가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습을 따르려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그의

딸을 배신했고 그의 도덕적 삶과 헌신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37장과 38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도덕적 삶이 급격히 쇠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의 요셉으로 이사갈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15장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있다면 나는 그 구절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비전 중 약속과 약속에 포함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후손이 400년 4대 동안 이방 나라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창세기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은 고대 근동 지역에 딱친 세계적인 기근에서 살아 남기 위해 이집트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기기를 켜거나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것을 반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서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족, 곧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 연구에서 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첫째, 본문 전반에 걸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2절을 보면 나와 함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번영을 누리며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1절과 23절을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요셉이 경험할 형통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에서 큰 권세와 권세를 얻게 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모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리를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장들 전반에 걸쳐 요셉이 꿈의 해석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투시 능력이 있거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40장 8절을 보면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고

해석을 구한 일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의 꿈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게서 발견한 것은 자신에 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는 41장의 바로에 관한 그의 꿈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공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열심히 설명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41장 16절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바로의 꿈을 꿔올 때, 법정은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파라오 앞에 끌려왔고, 파라오는 그에게 그의 두 가지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6절에서 요셉이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그가 원하는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는 주권자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서 이 필요에 응답하실 것이며 자신은 애굽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41장의 다른 구절들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며, 나는 단지 그 참조 구절들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다른 기회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에도 16절, 28절, 32절, 39절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요셉에 관해 39장에서 우리는 애굽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대조를 보고 싶습니다. .

12장에서 아브라함도 기근으로 내려와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브라함이 행했던 자매-아내의 계약으로 바로를 속이고 추방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가 증거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열방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요셉과 대조해보면, 우리는 요셉이 참으로 애굽과 애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에 축복의 근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부분적으로 성취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12장 3절). 자, 나는 일찍부터 유다와 요셉 사이에 대조가 있다고 언급했고, 우리는 여기 39장에서 바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유다의 경우, 그와 다말과의 근친상간 관계는 심각한 수치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 그와 성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유혹하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둬 거부하고 그는 명예로운 길을 택한다.

유다야, 수치스럽다.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을 존경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하고 보디발이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신학이 그려지는 다양한 방식과 화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강 아이디어를 사용한 다음 상승 반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둘째, 대상이 그를 데리고 가나안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이집트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는 39장의 끝 부분과 40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하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바닥에 있습니다. 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밧줄의 바닥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글쎄요, 요셉의 경우, 그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배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밧줄의 밑바닥에 있었고 그를 구출해 주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섯 구절에서 우리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보디발의 경우에는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은 39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와 축복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과 밧에 있는 모든 것에 임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도 말했고 이것이 약속의 방식으로 예상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축복 때문에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이삭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28장 29절에서 아비멜렉이 조약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야곱의 존재로 인해 그가 번영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것이 30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긍정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의 예표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39장의 두 번째 부분에 이르면 39장 6b절에서 이 내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체격이 좋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력적인 청년이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습관을 들이고 있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것은 순전히 추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경우에 그가 매우 매력적이고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자기 침대로 끌어들이려고 애쓰지만 그의 반응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주인이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를 존경했고, 나를 책임 있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적인 행위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어느 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나랑 같이 자자.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옷과 겹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아마도 속옷만 가지고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 악한 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그토록 존경스러운 반응을 보였는지를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39장 10절을 보면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지만 유혹은 한 번이 아니고 만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와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거부했고 심지어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유혹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다른 여자, 즉 당신의 아내와의 그러한 얽힘이 어떻게 파괴적이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잠언 5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적어도 두 곳에서 유혹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에 관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젊은 제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성적 유혹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유혹이 올 때,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유혹에 대비해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자주 우리 자신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강간을 당했고 보디발이 이 히브리 노예를 데려가야 한다고 가장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17절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노예는 자신의 민족성을 언급하면서 그를 품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인이 아닙니다. 그는 악당, 히브리 종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데려왔고, 나를 놀리려고 나에게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녀는 보디발이 반응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그녀는 발생한 일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에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요셉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B절부터 19절까지에서 그의 하강을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20절부터 23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간수장의 눈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어디에 있든 그가 지금은 바로의 감옥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감독자들의 눈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갇혔고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 나온 두 사람과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왕 앞에서 반복적으로 포도주를 시중들며 그 포도주가 그러한 왕에게 공로가 되는 것임을 틀림없이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식탁에 빵을 굽는 빵 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40장과 41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 두 가지 꿈, 그리고 41장의 바로의 두 가지 꿈은 요셉이 주님에 의해 다음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구원자, 자기 가족을 가나안 기근에서 구원할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는 자신이 이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온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한 강림이 이제 역전될 것이며 40장과 41장에서 그는 감옥의 지하 감옥에서 일어나 온 애굽의 두 번째 지휘관이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감옥이나 감옥에서 왕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요셉에게 이 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해석을 주실 주님에 의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꿈의 이중성, 즉 두 가지 꿈은 꿈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서둘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꿈, 즉 이교적 관점에서는 신이 준 꿈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41장 32절에서 이 사실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은 두 가지 꿈, 두 가지 형태로 바로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중 꿈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37장에서 요셉은 자기 형들이 와서 자기를 섬기는 것에 관해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절하는 단이 있고, 요셉에게 절하는 별과 달과 해도 있습니다. 그럼 꿈이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40장에 두 가지 꿈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41장에서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꾸니다. 그러면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은 소장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 1절에 보면 애굽 왕들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인에게 범죄하여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4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그들을 요셉에게 맡기매 요셉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그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 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세 개가 있고.

그러므로 포도를 맺고 포도주를 맺는 포도나무는 술을 시종드는 왕과 가까운 술 맡은 관원에게 적합한 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만 다소 위험하고 잠정적인 직위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내 생각엔 그가 파라오에게 정확히 어떻게 상처를 입혔는지에 대한 서술이나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는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꾸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그 송이가 포도가 익었습니다. 바로의 잔이 내 손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그의 손에 주었느니라

그래서 그는 이 꿈에서 자신이 회복되었음을 봅니다. 그는 이 꿈에서 자신이 다시 파라오 앞에 와 그의 의무를 회복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세 가지가 사흘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3년이 3년 3개월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요셉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호의를 표하고 당신의 지위를 회복시키려는 은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파라오의 술 관원이 되었을 때 하던 것처럼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당신에게 잘되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이야기를 파라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이런 투옥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은행장은 16절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의 해석에 너무나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16절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습니다.

내 머리에는 빵 세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맨 위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바칠 각종 구운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있는 바구니에서 그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은 18절에서 이것이 바로 그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세 바구니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릴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의 대조가 보이시나요? 13절에 머리를 들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여기서 머리를 들어올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셉은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은 자비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생일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떡 굽는 관원장을 처형했습니다(22절).

요셉이 통역으로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이것은 요셉에게 계속해서 신뢰와 명성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된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와 함께 그를 위해 로비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납치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그 이상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잊었다. 그는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의 좋은 전망에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의 의미는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고 우리가 그를 지지할 수 있지만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를 노예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0장과 41장에서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41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41장에는 바로의 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감옥에서 왕실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곳입니다. 감옥에서 왕실까지.

심지어 파라오의 두 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은 바로의 꿈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나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우에 그 꿈은 동물의 생명, 즉 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농업 환경, 즉 곡물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나일강 옆에서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일강은 이집트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일강 옆에 있습니다. 강에서 나오니 예쁘고 살찐 암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 갈대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흥하고 야윈 암소 일곱 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악하고 야윈 소들이 매끈하고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좋은 일곱 이삭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가늘고 탄 일곱 이삭이 돌아나고 그리고 그 가는 것들은 다시 먹혀서 좋은 곡식 일곱 이삭을 삼켰습니다. 이제 8-1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 바로가 마음이 번민하여 술객과 해석자와 점술가를 불러오매 그들은 이집트의 현자들이라고 불립니다. 해석을 통해 이 모든 일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글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환경에 있었을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영웅이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떡 굶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곧 우리와 함께 감옥에 갇힌 히브리 청년이 있었다”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꿈을 말하자 그는 그 꿈을 해석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4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가 급히 옥에서 나오니라 그는 왕 앞에 나아가려고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에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모티프,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자는 요셉의 영적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삶을 감독하고 계시며, 결과적으로 요셉이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완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의 옷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빼앗고 훔쳐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죄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가 죄수의 옷을 벗고 왕에게 더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의 옷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잊어버렸으니 돌아가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매우 아름다운 장식의 옷, 즉 겹옷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그 옷을 가져다가 그 옷에 동물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야곱에게 제시하여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옷의 모티브는 그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보는 데 중요합니다.

그는 가운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겹옷까지 빼앗아 그에게 사용했습니다. 그에게는 죄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고양될 것이며, 그곳에서 그는 궁극적으로 두 번째 지휘자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14절부터 24절까지이고, 25절부터 36절까지에서도 이 꿈들의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바로는 그들의 꿈을 듣고 해석하기 위해 이 요청을 구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요셉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가 원하는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귀하게 여겨졌을 축복과 번영, 해석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궁중 마술사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바로의 눈에는 그가 가장 큰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17절에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24절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바로의 꿈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가 하려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해 요셉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암소 일곱 마리와 좋은 일곱 이삭은 일곱 해의 풍년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앞으로 7년 동안 못생긴 소와 쓸모없는 이삭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7년 기근이 될 것이며 요셉이 설명하듯이 바로의 집안과 애굽 전체 국가와 그 너머를 구원하기 위한 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28절 이하에서는 내가 바로에게 말한 것과 같으니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

31절에서 그는 이 땅에 풍족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리니 이는 기근이 심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대비 해야 합니다.

그 꿈을 두 가지 형태로 바로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시고 속히 이루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3절에서 바로는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 즉 33절에서 말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열방 가운데 지혜의 전통이 크게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일반적인 취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라오는 인구와 동물의 생명을 먹이는데 필요한 곡물을 비축하여 국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요셉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 사람을 세워서 음식을 모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38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요점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로가 하나님의 사역, 즉 이 히브리 노예가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 수단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당연하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당신이 나에 이어 두 번째 지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1절에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애굽 온 땅에 무엇을 명하든지 내 입에서 나온 것 같이 되리라 그는 그에게 개인 식별 반지인 서명 반지를 주어 그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 여기에 다시 옷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42절에서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병거를 주며 그러면 관료제 공동체 전체와 그 너머의 사람들이 그의 진정한 지위와 권력의 위치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6절, 아니 오히려 45절로 돌아가서 바로가 다시 그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 그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샤브넛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이름이므로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디발의 딸 아스넛을 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온(On)의 신부입니다. 온(On)은 카이로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리스인들이 태양의 도시라고 명명한 태양의 도시인 헬리오폴리스였으며

, 그곳에서 태양신 Ra, Re, RE 또는 RI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RA라는 이름이 제사장 보디발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이것은 요셉에게 애굽인 아내를 주는 것을 존경하는 수단입니다. 그런 다음 46절에서는 요셉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과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는 30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7장 2절에서, 그가 형들과 그에 대해 커진 큰 미움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았을 때 그가 17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살이니깐 1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13년 동안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야곱의 지정된 가족의 남은 자를 보존하기 위한 주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세상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요셉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양의 곡식을 쌓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기록을 남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총만함, 총만함의 모티브이다.

그리고 우리는 47절부터 49절까지의 창고에서 이것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50절부터 52절까지에서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도 봅니다. 그러므로 온 애굽에는 그 창고가 있으니 곧 요셉의 특별한 집이니라 아내를 얻은 후 두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곡식의 분배도 총만과 성취의 개념이다. 이제 이 두 아이의 이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셉은 점점 더 이집트인의 정체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아주 미묘하지는 않지만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가 요셉이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의 집과 형의 집에 대한 모든 비참함과 슬픔, 13년 동안의 모든 고문과 공포를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이 도덕적 타락의 위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로 잊혀진다는 생각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민속 어원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51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2절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 두 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이 그의 마음 속에 매우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에서 구원하셨고 이 모든 것을 그 뒤에 두셨습니다. 이제 56절의 해설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창고를 열고 기근을 대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그 재앙이 심했습니다. 무거웠어요.

57절.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애굽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근 때문에 온 세상이 곡물을 사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 땅으로 들어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번에 우리가 보게 될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결국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 자신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조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0장에 묘사된 다양한 민족 그룹을 모두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 세상을 먹이시는 분이시며,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공급하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올바른 친척 관계를 맺게 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브라함의 이상적이고 완전한 후손인 아브라함의 씨와 올바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22회기, 애굽의 요셉, 창세기 39-41장입니다.